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A Study on Empathic Development in Korean Children

연진영**

ABSTRACT

YON Jin Young

Empathy was defined in this study as the vicarious affective response of a person to the perceived experience of ano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ntimacy with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empathic response to specific affective situations happy, sad, angry and fearful.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8-, 10-, and 12-year-old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Among the subjects, 158 boys and 149 girls lived with their parents, and 20 boys and 35 girls were reared in orphanages. They were from a residential area with higher, middle, and lower class families. The instruments consisted of two modified empathy measures and two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One of the empathy measures was based on Feshbach & Roe's affective situation test for empathy. In order to determine the eight themes, 20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about situations that made them "happy, sad, angry, and afraid". From the pool of responses, eight themes representing happy, sad, angry and fearful situations were selected. Each story consisted of a series of three pictures accompanying narration. Another modified empathy measu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based upon Bryant's empathy scale. This measure consisted of 17 statements describing happy, sad, angry and fearful situations. The items in this scale were selected from a pilot study. The two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were to test children's intimacy for their parents and femininity. The data was analyzed with T-test and F-test.

Children's intimacy with their parents, particularly, son's intimacy with their mothers,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 empathic development. Children living with their parents had higher scores on Feshbach & Roe's Empathy Test than those brought up in orphanages. In general, the older the children the higher the empathy score. Girls were more empathic than boys on Bryant's scale. The subjects showed their highest empathy score in the sad, and the lowest in the fearful situation. The older the children the higher the empathy score in the sad and angry situations. These results reflected children's life experiences and cultural differences. Particularly, mother-son intimacy found in this study contrasts with the mother-daughter intimacy found in American studies.

* 이 논문은 1988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상명여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I. 研究問題의 提起

타인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Piaget의 眺望受容理論을 중심으로, 주로 認知發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70년대에 들어와서 共感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근래 共感이 하나의 연구과제로 관심을 끈 이유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봄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親社會的 行動의 발달을 위해, 共感이 主要變因이라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Eisenberg, 1977 ; Rushton, 1980) 실제로 共感度가 높은 아동이 높은 水準의 親社會的 行動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Feshbach, 1983 ; Iannotti, 1984 ; Krebs, 1975 ; Sawin, 1979 ; Teller, Marcus & Roke, 1979).

지금까지 이루어진 共感의 연구는 그 概念의 多樣함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公感의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며, 대체로 共感概念의 커다란 두 가지 觀點에 따라 연구되어 왔다. 그 하나는 公감을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는 能力으로 보는 立場(Dymond 1949 ; Hogan, 1969)으로 共感を 認知的 發達觀點에서, 많은 認知技術의 발달가운데 하나로 보는 見解이다.

다른 하나는 共感を 社會的 發達로 보는 觀點이다. 共感を 단순히 타인의 느낌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 이상으로 보고, 共感を 타인에게서 觀察된 情緒를 代理經驗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Hoffman, 1975). 그러므로 共感의 測定方法 역시, 共感概念에 따라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前者

의 共感의 認知的 能力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는 Hogan(1969)의 共感尺度가 있으며, 後者의 타인의 감정을 대리경험하는 면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Q.M.E.E.(The 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가 개발되었다.

이 두가지 척도는 전부 성인의 公感측정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共感의 多次元의이고, 多樣的 面을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며, 두 尺度間의 相關關係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公감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측정했음을 입증하였다.

아동용 共感尺度로는, Feshbach와 Roe (1968)의 A.S.T(Affective Situation Test)가 幼兒와 국민학교 低學年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도구는 아동에게 연속된 3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의 상황에 대해 아동이 느낌을 대담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부 自己報告式이기 때문에 被驗者가 정답을 말하려는 의도나,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을 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실제의 公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顔面反應의 觀察이나, 생리적 반응, 또는 타인이 報告하는 방법들이 병행되었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라, 연구결과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共感研究에서 논란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측정의 문제로서, 共感和 關聯變因들간의 연구에 있어서 非一貫的인 結果가 나타나는 것은 公감측정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Iannotti, 1980 ; Eisenberg & Lennon, 1981).

共感發達에 關聯變因으로는 주로 부모와의 關係, 아동의 연령, 性別 등이 연구되었는데, 相反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연령을 獨立變因으로 채택한 대부분의 연구 (Feshbach & Roe, 1986 ; Fay & Marcus, 1979 ; Hugh, Tingle & Sawin, 1981)에서는 아동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認知能力이 선행해야 共感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한 Hoffman (1981)의 공감발달이론이 支持되고 있으나 이 연구들의 대상이 주로 유아와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共感도의 증가가 과연 어느 연령층에나 다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만6세에서 만9세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Iannotti (1979)는 연령이 높은 아동의 共感도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으므로, 이런 결과에 대한 좀 더 다각적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자들 사이에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共感과 性別間的 관계로써 共感尺度에 따라 혹은, 실험자의 性別에 따라, 아동의 性別에 따른 共感도의 차이가 일관성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종류의 공감측정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감척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선행연구 결과의 非一貫性을 재확인하는 셈이 되며, 공감측정방법 및 척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의 性別에 따른 共感도의 차이가 진정으로 남성, 여성이라는 性別에 기인하는 것인가, 혹은 공감을 여성적 특성이라고 말하는 학자들(Lo-

cksley & Cotten, 1977)의 주장대로 아동이 가진 性特性的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함으로써 性別에 의한 共感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關聯變因은 母의 태도와 공감과의 관계이다. (Hoffman, 1967 ; Roe, 1977 ; Bryant & Cronkenberg, 1980). 이 연구들은 母의 유도적 태도, 母와의 애정적 관계는 딸의 공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공감발달에 미치는 父의 양육태도와 역할에 대하여는 효과가 분명치 않다. (Roe, 1980)고 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父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거론한 獨立變因인 부모와의 親密度, 아동의 年令, 性別, 性特性和 아동의 共感과의 관계를 밝혀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첫째, 부모와의 親密度가 아동의 공감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둘째, 아동의 연령과 性別 및 性特性和 아동의 공감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공감척도에 따라 性別에 따른 아동의 공감도에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외에도 가정의 社會經濟的 階層과 아동의 공감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가 모두 없는 시설수용아의 공감도와 정상가정아의 공감도의 비교를 통해, 부모와 아동간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아동의 공감발달에 主要變因임을 밝혀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아동의 특정한 情緒狀況 즉 기쁨, 슬픔, 분노, 공포에 대한 공감이 어떤 樣相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先行研

究와의 비교를 통해 아동의 공감발달의 문화에 의한 차이를 찾아 보고자 한다.

II. 先行研究의 考察

아동의 共感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利他行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이타행동의 仲裁變因으로써 共感에 대한 연구량이 점차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심리학에서의 다른 영역에서와 같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폴란드에서도 이미 6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Reyknowski, 1984). Eisenberg, Bar-tal 등이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共感과 親社會的 行動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고, 共感自體를 연구주제로 한 것이나, 共感發達을 직접 다룬 연구는 적은 편이다. 공감의 개념이나 發達理論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는 Hoffman, Feshbach로서, 공감의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공감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학자들의 공감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共感의 概念을 파악하고 공감의 發達理論, 공감발달의 關聯變因을 先行研究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共感의 概念

共感이 개인의 상호관계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와는 달리, 정작 공감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일치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役割受容能力 (Dymond, 1949 ; Staub, 1978), 社會認知 및 社會的 理解를 예측하는 정확성 (Dymond, 1950) 등의 認

知助 측면을 강조하는 공감 정의에서부터 타인의 情緒의 代理反應 (Hoffman, 1978) 혹은, 情緒的 意思疎通 및 情緒的 傳染 (Aronfreed, 1968 ; Mehrabian & Epstein, 1972 ; Izard, 1977 ; Hoffman, 1981) 등의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공감 정의까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 정의되어 왔다. 혹은 친절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Cohen, 1978).

이러한 共感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즉, 공감을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인지적 能力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타인의 감정을 대리해서 경험하는 情緒的 反應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도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감의 多次元的이면서 복잡한 과정을 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의 認知的, 情緒的인 면을 주장한 학자와 정의들을 각각 정리하고 다음으로 共感의 인지, 정서 양면을 포괄적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공감의 정의에 포함된 공통요인을 찾아 공감의 개념파악에 근접하고자 한다.

공감의 認知的, 情緒的 양면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학자는 Feshbach(1975)이다. 그는 공감 개념에 다음과 같은 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감이란 첫째,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분석하는 能力, 둘째는 첫번째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認知要素인, 타인의 眺望과 役割을 가정해 보는 능력 및 세째는, 정서적 요소으로써 타인에 대한 정서적 反應을 들었다. 이 개념 정의는 두 가지의 인지 요소와 하나의 정서적 요소를 포함시킨 포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共感이 認知的인 성격의 것인가, 情緒的인 성격의 것인가, 혹은 두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1970년대 말, 미국학자들의 논쟁점이었다. 최근에는 행복한 정서와 불행한 정서가 동등하게 공감을 일으키는데 적용하는가, 그리고 공감이 親社會的인 행동을 仲裁하는가 혹은 단순히 그에 同伴하는 문제인가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eshbach, 1982).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概念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情緒的인 役割受容이 오랜동안 공감반응을 위한 기초로써 제시되어 왔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 역시 공감반응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Feshbach, 1978) 생각되므로, 공감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같이 느끼는 대리경험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情緒的, 認知的인 양면을 포함한 폭넓은 공감 정의로써 본 연구에서 尺度製作時 참고로 한 Bryant(1982)의 共感定義와도 일치한다. Bryant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감정적 경험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대리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던바, 본 연구의 두가지 共感尺度는 이러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공감 개념은 이렇듯 단순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공감의 요인을 모두 포괄한 Feshbach의 정의를 근거로 타인의 처한 상황을 지각하고, 그의 역할을 受容하여, 그의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써 공감을 정의하고자 한다.

2. 共感의 發達

공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연령을 공감에 영향을 주는 獨立變因으로써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인지적, 정서적 성숙이 공감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변인을 알 수 있다. 아주 어린 유아기에서부터 공감이 가능하다는 연구들과 더불어 연령에 따라 공감수준이 증가한다고 밝힌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Simner, 1971 ; Sagi & Hoffman, 1976; Waxler & Yarrow, 1979).

共感의 경험은 아동이 타인을 認識하는 수준에 달려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공감적 반응은 타인에 대한 認知感覺의 발달단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아기에는 자아와 타인과의 혼돈상태로 누가 고통중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1년쯤되면 자신이 아닌 타인이 고통중에 있음을 아는 상태로 발전하나 타인이 그 자신의 內的인 狀態를 갖고 있음을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며, 유아기인 2, 3세경에 비로소 役割受容能力이 생기므로 타인의 감정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아동후기에 이르러 12세까지 自我의 개념 및 타인을 그 자신만의 경험과 正體感을 가진 개인으로서 인식하게 되면서 좀 더 폭넓은 共感的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공감 발달이란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감도가 높아진다는 발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감 발달이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시사해 준다.

아동이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발달 단계를 구별한 최초의 학자는 Baldwin (1897)이었다. 그는 아동이 처음에는 타인

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별하고 미생물로부터 하나의 “類”로서 사람을 구별한다. 그런 다음에 사람의 類안에서 그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게 된다고 하였다. 後者의 구별은 아동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경험과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自我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상호간에 성장하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기초를 형성한다. Hoffman (1981c)은 타인을 인식하는 수준을 광범위하게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人物永續性的의 발달, 둘째가 역할수용의 단계, 셋째로는 人物正體感의 발달로 설명하였다.

共感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認知가 발달해야 가능하며 이는 대상이나 인물의 永續性에 대한 발달이 우선해야 한다. 人物永續性이란 나와는 별개의 신체적 총체로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 유아들은 물론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다. 생후 18개월 정도까지는 유아는 눈앞에 있던 물건이 없어져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이는 對物永續性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人物永續性은 이 보다 더 일찍 발달하여 1세쯤에는 사람에 대한 心像을 간직하게 된다.

Hoffman에 의하면 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며, 때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 단계로 유아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을 어렵듯이 그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타인에 대한 지각으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나타낸다. Waxler와

Yarrow (1979)의 연구에서도 12달된 유아가 고통중의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은, 그를 부드럽게 잡는 것과 유아자신을 부드럽게 잡는 것이 번갈아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幼兒期에는 아직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內의狀態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므로 그 자신이 가장 편하게 위로 받았던 방법으로, 혹은 자신을 가장 효과있게 위로해 준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고통중의 타인에게 共感을 표시하는 것이다. Hoffman은 이를 자기중심적 공감이라고 하였으나 유아가 利己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은 아니므로 전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못된다고 하였다. 유아는 2~3세가 되어 役割受容能力과 함께 타인의 감정이 자신과는 다름을 인식하게 된다. 언어가 발달하면서부터 顔面이나 신체현상 뿐 아니라 상징적 단서로부터도 의미를 이끌어 내게 되면, 아동은 실망이나 배신감 같은 복잡한 정서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정서로 공감하기 시작한다.

아동 後期가 되면 아동은 상대방이 없을 때조차도 적절한 정보에 의해 共感을 일으킬 수 있게 되며, 타인의 고통이 더 나아지지 않고 慢性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공감적 관심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때는 오히려 생활조건에 대한 정보가 관찰자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 공감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동의 연령에 따라 認知가 발달하면서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므로 고통중의 타인을 목격했을 때 경험하는 정서의 단계가 인지 발달과 함께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Aronfreed (1968)는 共感의 발달

에 條件化理論을 가정하였다. 타인의 요구를 인식함은 非發達的 현상이라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음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認知的 발달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경험했던 것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요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짝을 이루는 반복된 경험의 결과로써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아동이 타인으로부터의 고통이 그들 자신의 고통을 자주 예시함을 알게되면서, 타인에게서 나온 고통의 端緒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발달시킨다. 이 代理的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이 경험하는 共感的 반응의 고통을 덜기 위해 利他的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Aronfreed에 의하면, 공감이란 이렇듯 條件化에 의해, 혹은 履歷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써, 되풀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공감이나 利他的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본다.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役割受容 훈련을 한 집단과 統制集團과의 비교 연구를 한 Staub (1971)이나 6~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Iannotti (1978), Friedrich & Stein (1975) 등의 연구에서도 역할수용훈련을 한 집단이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나눔이나 도움등의 親社會的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음이 밝혀졌다.

이상 기술한 Aronfreed의 이론과 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은 넓은 의미에서 감정의 억제, 표현, 경험과 관련된 社會化過程이 공감의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곧 아동기의 社會化的 場인 가정에서 부모와

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할 때 아동의 공감이 잘 발달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3. 共感發達과 關聯된 變因들

共感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공감발달과 관련 변인으로써 아동 개인의 變因인 성별과 연령을 獨立變因으로 가장 많이 다루었고 (Feshbach & Roe 1968 ; Marcus et. al., 1979 ; Hugh et. al., 1981) 그 밖에 役割受容能力과 공감과의 관계 (Iannotti 1987 ; Gove, 1979), 부모의 훈육태도 및 공감수준과 자녀의 공감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Hoffman, 1967 ; Feshbach, 1975 ; Roe, 1977 ; Barnett, 1980). 이들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공감 발달에 있어서는 5~8세까지 아동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공감수준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성별에 의한 공감수준의 차이는 일관성이 없게 나타났다. 또한 母의 共感水準은 여아의 공감 발달과 긍정적 관계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본 節에서는 아동의 공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써 부모에 대한 親密度,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연령, 성별 및 성격특성에 대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兒童의 父母에 대한 親密度

부모와 자녀간의 愛情的 관계는 대체로 관심이나 지지 또는 受容, 사랑의 느낌등의 표현을 통한 행동으로 이루지는 데 이런 부모의 태도는 직접적 모델링 (modeling)과 同視의 효과를 강화해 준다. (Mussen, 1980)

특히 부모의 훈육 기술과 양육태도는 아동이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편이 발표되었다. (Hoffman, 1967 ; Feshbach, 1975 ; Roe, 1977 ; Bryant & Cronkenberg, 1980), 이 연구들의 결과는 대개 母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과의 밀접한 관련을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父와의 관계는 아동의 공감 발달과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한 Hoffman(1967)은 아동을 훈육할 때 강제력을 사용하는 부모의 아동은 남을 생각하는 수준이 낮았으며, 유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共感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가 유도적 방법을 사용할 때,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감정을 연관시켜서 설명함으로써 아동에게서 공감 발달이 촉진된다. (Bryant & Cronkenberg, 1980).

이것은 그리스와 미국 아동의 공감 연구에서, 그리스 아동의 공감수준이 미국의 아동보다 낮았는데 이것은 그리스 어머니들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양육 방법 때문이라고 밝힌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Roe, 1977).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Feshbach(1975)는 공감은 어머니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의 인내심과 許容性이 공감과 正的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머니의 體罰, 갈등, 拒否, 과도한 統制 등의 태도와는 否的 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딸의 공감과는 무관하였으며, 아들의 경우는 부모의 태

도보다는 사회적 이해와 관련된 認知能力的 함양이 공감 발달에 더 선행조건인 듯하다고 보고하였다. 54명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슬라이드를 통하여 아동의 공감 점수를 측정하고, 부모의 공감 수준과 양육태도를 조사한 연구 (Barnett et. al., 1980)에서는 어머니의 공감 수준은 딸의 공감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였으며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공감 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아버지의 공감 수준이 높을 때보다는 어머니의 공감 수준이 높을 때 딸의 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딸에게 더 애정적이며 타인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인 듯하다.

Roe(198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효과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부모로부터 罰의 위협을 받을 때, 자녀의 공감 수준이 낮으나 아버지가 오랜 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共感水準이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는 어머니와 비교적 오랜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罰은 오히려 어머니에게서 더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體罰이 아동의 공감발달에 否的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할 때는 罰의 사용이 공감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나 관계가 부정적 이거나 모호할 때는 罰의 횡수에 관계없이, 벌이 공감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罰의 有無나 罰의 횡수보다는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母와의 친밀한 관계는 母

를 同一視 함으로 여성적인 특성인 공감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적 특성의 발달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이론들 (Biller, 1969 ; Lamb, 1976 ; Johnson, 1977)을 상기해 볼 때 과연 父와 母중 어느 쪽과의 밀접한 관계가 공감 발달에 주요 변인인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전히 母와의 관계가 공감발달과 관계가 깊은 반면 父와의 관계는 아동의 공감발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아직도 가정에서의 父의 역할이 아동 양육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

오랜동안 社會階層의 개념은 가정의 생활 조건이나 부모의 심리적 속성, 가치 등을 형성하는 비교적 안정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교육정도와 父의 직업, 거주지의 환경, 수입수준 등은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보다는 부모의 가치, 흥미, 양육태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아동의 共感發達과 가정의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으나, 親社會的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많이 발표되었다. (Doland & Adelbeg, 1967 ; Madson, 1967 ; Knight & Kagan, 1977). 共感이 친사회적 행동의 중재변인인 점을 생각하여 가정의 사회계층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로부터 가정의 계층이 공감에 주는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들의 고찰 결과, 가정의 사회계층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일관성 있

는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계층에 따라 가치관이나 생활문화가 다르므로, 일상생활에서 感情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계기가 다르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가정의 계층이 아동의 共感發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은 필요하다. 下流階層의 아동이 중류계층에 비하여 타인의 이해의 발달수준이 낮음을 지적한 김나영 (1985)은 중류계층의 아동은 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친구나 부모와의 경험이, 하류계층 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남의 입장이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인지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階層變數에 따른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아동의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 오히려 계층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공감수준이 낮을 지도 알 수 없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계층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오히려 利己的이고, 남을 생각하는 경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Knight & Kagan, 197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계층이 아동의 공감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3) 兒童의 年令

연령변인은 發達學者들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독립변인으로써, 연령에 따른 공감수준의 증가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eshbach와 Roe (1968)는 5~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공감이 발달함을 밝혔고, Marcus 등은 37-61개월된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심과 共感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역시 공감수준이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Hugh 등 (198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幼稚園兒와 국민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A.S.T를 이용한 연구에서 두 연령층의 공감수준의 차이를 밝혔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어릴수록 상황적 계기와 확실한 因果關係의 사건에서 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람”에 초점을 두었으며 感情誘發狀況에서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을 밝혔다.

Gove (1979)와 Peterson 과 Gelfand (1984)의 연구에서도 1, 4, 6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상황을 들려주고, 남을 돕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 수록 도움의 이유로써 공감을 대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또한 共感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는 Kuchenbecker 등의 연구(1974)에서는 유치원 아동, 국민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이해가 연령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났으며, 共感 역시 의미 있는 발달적 변화를 보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숙함에 따라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이 증가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이 커지므로, 남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따라서 커진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Hoffman의 공감발달의 단계이론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Iannotti (1978)는 각각 30명의 6세, 9세 아동을 대상으로 Feshbach와 Roe의 공감척도를 이용하여, 役割受容, 利他心,

共感 및 攻撃性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9세 아동의 공감도가 6세 아동보다 낮음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해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2,4,7학년을 대상으로 공감의 발달적 변화를 본 연구에서도 2,4학년간에 공감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Bryant, 1982).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대체로 연령에 따른 공감수준의 증가를 밝히고는 있으나 연구대상 아동이 대개 유아 및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연령에까지 공감발달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며 또 어느 연령층에서나 같은 狀況과 機制에 의해 共感이 유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국민학교 低學年과 高學年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감측정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1982년에 개발된 Bryant의 국민학생 및 청소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共感尺度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아의 연령층을 넓혀서 연령에 따른 공감수준의 변화를 밝혀 보려고 한다.

4) 兒童의 性別 및 性特性

공감발달의 性差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한 Maccoby와 Jacklin (1974)은 29개의 논문을 고찰한 후, 공감발달의 성차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근의 대부분의 연구들도 성별에 따른 공감수준의 성차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근의 대부분의 연구들도 성별에 따른 공감수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Gove et. al., 1979 ; Marcus et.al., 1979 ; Roe, 1980 ; Barnett, 1980 ; Hughes et. al., 1981). Feshbach와 Roe의 슬라이드

를 이용한 Levine 과 Hoffman(1975)의 연구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부분적으로 높은 공감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공감의 性差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自己報告式이나 타인이 보고 하는 연구에서는 대체로 性差가 나타났으나 안면 표정이나 생리적 반응에 의한 측정일 때는 성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질문에 답할 때, 소녀들은 그들이 평가당하는 것을 알 때에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타인에게 共感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리라는 점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양육이나 돌봄 등은 여성의 전형적인 역할이므로, 반응에 있어서 진정한 性差가 없어도 여성들이 더 공감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 하는것 같다.

그러나 共感を 증대하는 요인에 대하여는 성별에 따라 꽤 차이를 보이고 있다.(Feshbach, 1982). 소년의 경우는 공감이 어휘력, 읽기능력, 이해 空間眺望受容 등과 긍정적 관계였으며 소녀의 경우에는 긍정적 自我概念과 親社會的 행동이 공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Feshbach는 아동의 성별 뿐만 아니라 대리경험한 정서의 본질이 행복한 정서인가, 불행한 정서인가, 그리고 아동이 경험한 정서적 경험의 강도의 세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공감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소녀들은 불행한 정서나 행복한 정서에 공감하는 것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난 반면 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소년은 타인이 기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

다 감정을 나누거나 위로해 주고 도와 주려는 동기가 덜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공감수준의 차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공감측정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 이리라는 점과 성별과는 무관하게 남녀 아동이 지닌 性特性중 女性性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아동의 共感度의 차이를 밝히면서 이러한 차이가 여성성의 차이에 의한 결과인가를 아울러 규명하려고 한다.

위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공감연구에 있어서, 공감의 개념 및 정의의 문제와 공감측정의 문제의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공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공감측정 방법의 개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감의 개념 및 정의의 문제이다. 그러나 공감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共感を “직관”이라고 모호하게 정의한 학자 (Weigert, 1962)에서부터 타인과 같이 생각하고 그의 역할을 취득하는 능력 (Dymond, 1949 ; Hogan, 1969)으로써 인지적 능력을 강조한 정의 혹은 타인과 비슷한 감정을 갖는 것 (Aronfreed, 1968)이라는 공감의 정서적인 면을 강조한 정의 등 다양한 정의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것 한가지 만으로는 공감의 개념을 다 말할 수 없으며, 공감현상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Mehrabian 과 Epstein (1972) 에 따르면 공감연구는 공감에 대한 견해에 따라 두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고 한다. 즉, 공감 정의

의 두 줄기 흐름중 어느 한가지 정의에 초점을 맞춰 측정, 연구되었다. 그러나 공감에 관한 몇 가지의 일치된 견해를 보면 우선 공감을 내적기제에 근거한 정서적 경험으로서, 認知, 학습, 경험의 영향을 받으며, 타인의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써 일어난다는 것과 공감 역시 다른 심리적 발달의 형태와 병행해서 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경험을 넓혀감에 따라 自我中心性을 탈피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증가해 간다는 점이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共感이란 타인의 감정을 代理해서 경험하는 것인데 인지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같이 증가해 가는 것으로써, 認知的, 情緒的 양면을 다 포함시켜서 정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Feshbach의 포괄적 정의를 택하였으며, 공감척도에서도 공감의 인지적, 정의적 양면을 다 고려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둘째로, 공감의 측정의 문제인데, 공감의 실제 존재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하는 학자들 (Hatfield, Walster & Piliavin, 1978; Cohen, 1978)에 의하면 공감은 罪責, 羞恥 등의 용어와 같이 虛構라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공감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전개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차후의 연구로 미루고 공감의 측정방법상의 문제만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감의 정의가 다양하므로, 공감측정의 방법에 일치된 하나의 측정 도구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한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공감 측정의 방법들을 보면 혈관수축이나 손에 땀이

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 (Stotland, 1969) 被驗者의 自己報告에 의한 방법 (Staub, 1979).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 자기보고와 관찰의 병행 (Arthur, 1983) 혹은 타인에 의해 평가하게 하는 방법, 顔面表情 (Howard, 1983) 이나 反射的 피부반응 (Huckney, 1978), 몸짓 혹은 親社會的 행동에 의한 측정 (Staub, 1979) 등이다. 그러나 남녀의 性差가 측정방법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점등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다.

Mehrabian과 Epstein(1972)에 의하면 공감연구는 共感에 대한 견해에 따라 두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고 하는데 가장 널리 쓰여온 Hogan(1969)의 공감척도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Mehrabian과 Epstein의 Q.M.E.E (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와 Feshbach와 Roe의 A.S.T (Affective situation test)는 타인의 정서의 대리경험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두가지는 성인용 척도이고 後者는 아동용 척도인데, 성인용 척도는 두가지 척도간에 상관계수가 아주 낮게 나타남으로써, 공감의 두가지 개념인 정서적 반응과 역할 취득능력이, 공감의 서로 다른 下位概念임을 시사해 준다.

아동용 척도인 A.S.T는 국민학교 저학년과 유아의 공감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A.S.T는 해설을 포함한 3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라이드를 다 본 후에 느낌을 물어서 아동의 대답과 이야기속 인물의 情緒

상태가 같으면 점수를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척도를 이용해서 공감을 연구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Howard, 1983).

첫째, 아동의 言語의 표현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어려우며 옳은 답을 하려는 의도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둘째, 이야기중에는 非人間 相互關係를 다룬 이야기가 몇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상호간의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예견하는 데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셋째, 공감점수를 내는데 있어서 언어반응의 정확성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방법은 유치원 아동에서부터 국민학교 3, 4학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층의 연령까지의 발달적 변화를 규명하는 데는 적합치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isenberg 와 Lennon(1981)에 의하면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共感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령이나 性差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공감 측정방법의 차이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Bryant(1982)는 국민학교 아동과 청소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감척도를 개발하였다. Bryant는 공감을,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代理的으로 정서반응을 하는 것으로써 정의하고 Mehrabian 과 Epstein의 공감척도를 기초로 20 문항으로 구성된 공감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문항을 읽고 피조사자인 아동이 스스로 답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연구방법으로써 제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제로 경험한 감정과 자기가 경험하

고자 하는 감정이 혼동될 수가 있고 또 피조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답변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yant의 척도는 넓은 연령층의 아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이 간단해서 많은 대상을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척도는 여러가지 다른 특성이나 관련척도와의 相關을 분석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것으로, 顔面反應이나 생리적 반응 등의 측정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공감연구를 위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記述한 이론적 고찰과 關聯研究의 결과들을 근거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가설 1 : 아동의 共感度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意味있게 높다.
- 가설 2 : 女兒의 공감도는 男兒의 공감도보다 意味있게 높다.
- 가설 3 : 父母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아동의 공감도는 부모에 대한 친밀도가 낮은 아동의 공감도보다 意味있게 높다.
- 가설 4 : 사회, 경제적 계층이 높은 가정의 아동의 공감도가 사회, 경제적 계층이 낮은 가정의 아동의 공감도보다 意味있게 높다.
- 가설 5 : 施設受容兒의 共感度는 正常家庭兒의 공감도보다 意味있게 낮다.
- 가설 6 : 아동의 女性性과 共感度간에는 유의한 正的相關이 있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본 장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절차와 연구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된 測定 道具의 제작,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자료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記述하려고 한다.

1. 研究對象

본 연구는 앞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正常家庭兒와 施設受容兒를 선정하였다.

만 8세에서 12세 사이에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는 Hoffman(1982)의 이론에 근거하여, 생년월일을 가지고 만 연령을 계산하여 8세, 10세, 12세의 세 연령층을 2, 4, 6학년에서 연구자가 任意로 각 두 반씩 표집하였다. 정상가정아는 가정의 사회계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K국민학교에서 남녀 각 100명씩 330명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1개월 이상 부모와 별거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이중 응답이 부실한 아동을 제외한 총 307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시설수용아는 동작구 사당동의 ○○보육원, 서대문구 홍은동의 ○○보육원, 구로구 시흥동의 ○○보육원 등 3개의 보육원에서 8세, 10세, 12세 아동 총 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상가정아에 비하여 숫자가 적은 이유는, 1개 보육원의 원생이 유치원에서 청년기까지 많은 경우는 80명 정도에서 적은 경우는 50명 정도였으므로 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1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아기 때부터 보육원에 들어 온 아동은 한 보육원에 1, 2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의 확보를 위해 보육원에 들어온지 2년

이상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表 1〉 研究對象 兒童數

연령	정상가정아		시설수용아		계
	남	녀	남	녀	
8세 (N=119)	51	50	7	11	119
10세 (N=121)	50	49	11	11	121
12세 (N=107)	57	50	2	13	122
소 계	158	149	20	35	
총 계	307		55		362

2. 研究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 도구는 공감 측정 도구 두가지, 부모에 대한 친밀도 검사지 및 性特性 검사지이다. 특히 共感度 측정을 위해 두가지의 도구가 사용되었는데, 그 까닭은 첫째, 공감 개념은 단일차원의 구조가 아니므로 아동들은 타인의 특정한 정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리라 (Howard, 1983)는 생각에서 특정한 정서상황의 이야기로 구성된 Feshbach와 Roe의 A.S.T와, 공감을 개괄적으로 검사하는 Bryant의 공감척도의 두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둘째, 이유로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공감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응답 방법이 다른 두 가지의 검사를 사용해 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Feshbach와 Roe의 A.S.T는 유아기 및 국민학교 저학년의 공감 측정에 적합한 도구이므로 좀 더 넓은 연령층까지 포함해서 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Bryant의 共感尺度를 참고로 제작한 또 하나의 공감 검사기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 도구의 용도, 제작방법, 타당도에 관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兒童의 共感測定道具 I

4절지 크기의 백지에 기쁨, 슬픔, 분노, 공포의 4가지 정서를 나타내는 이야기를 천연색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도구는 본래 Feshbach 와 Roe(1968)의 아동용 공감 측정도구로써 특히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국민학교 저학년과 유아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는 것이다. 이야기에는 주인공의 감정을 나타내는 설명은 들어 있지 않으며, 그림으로부터 주인공의 감정을 유추할 수 없도록 주인공의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자가 이야기 내용을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는 것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道具製作전에 국민학생 10명에게 일상생활에서 기쁨, 슬픔, 분노, 공포를 느끼는 경우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중에서 對物關係나, 혼자서 하는 경우 및 특별한 계층의 아동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 등을 제외하고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共感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본래의 척도의 이야기와 유사한 것으로 각 情緒마다 2가지씩 총 8개의 그림이야기를 정하였다. 각 情緒狀況을 나타내는 연속된 3장의 그림을 아동학 전공자와 成人에게 제시하여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한후, 표현이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것은 그림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8개의 그림이야기를 8,10,12세 아동 각 10명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림을 제시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지, 실험자

의 질문이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그림을 수정하고 이야기 내용을 보완하여 도구를 완성하였다. 전체 문항간의 상관은 .52에서 .68까지로 나타났으며, 하기방학을 사이에 두고 2번에 걸쳐서 본 도구로 검사를 한, 前後검사의 상관계수는 .60이었다. 그림은 미술대학 출신의 이 방면의 전문가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한 것을 확인한 후 그림의 설명과 이야기가 쓰여진 자료를 주어 우선 밑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것을 아동학 전공자 및 성인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한 후 몇차례 수정 지시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아동에게 제시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그림은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천연색 그림을 완성하였다.

각 정서상황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기쁨: ① 심심하던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게 된 이야기
② 친구덕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게 된 아동의 이야기
2. 슬픔: ① 심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이야기
② 새로운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혼자 남겨진 아동의 이야기
3. 분노: ①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동의 이야기
② 장난감을 험신 아이에게 빼앗긴 아동의 이야기

4. 공포 : ① 낮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동의 이야기
② 길에서 사나운 개에게 물
릴 뻔한 아동의 이야기

2) 兒童의 共感測定具II

이 도구는 1982년 Bryant가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Bryant의 검사지는 아동이 직접 질문지의 문제를 읽고 답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妥當度와 信賴度가 입증된 검사지이다. 이 검사지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 첨가하여 총 2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Y국민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항들의 內的 合致度와 相關係數를 산출하여 2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α 계수는 .56 이상이었으며, 전체 문항간의 상관은 대체로 .3에서 .6까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의수준 1%) 공감측정도구 I과의 상관을 산출해 보니 .09로서 두 가지 공감척도의 상관관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척도간의 상관이 아주 낮았으므로 척도를 다시 한번 제작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Bryant의 검사지를 토대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실정을 반영하여 문항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국민학교 2, 4, 6학년 아동 120명에게 각각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자유롭게 2~3가지씩 쓰도록 하였다.

각 상황별로 빈도분포를 내어 각 정서 상황마다 가장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빈도 순

위가 3~4위까지의 사례와, Bryant의 본래 척도의 문항을 참고로 기쁨, 슬픔, 분노, 공포의 정서상황마다 4~5 문항씩 총 26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를 가지고 Y국민학교 어린이 1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전체문항간의 상관계수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문항 17개를 본 조사 질문지의 문항으로 하였다. 17개의 문항중 기쁨의 정서상황이 4문항, 슬픔의 정서상황이 7문항, 분노, 공포의 정서상황이 각각 3문항씩 이었다. 이 질문지의 內的 合致度는 .64 이상이었고 하기방향을 사이에 두고 두번에 걸쳐서 본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검사의 상관계수는 .69이었다. 공감척도 I과의 상관계수는 역시 .08로써 낮게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인 슬픔과 기쁨의 정서상황과는 .1 이상으로써 5%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슬픔의 정서상황과 기쁨의 정서상황의 문항은 각각 4문항 이상인데다 비교적 대답이 일관된 반면, 공포와 분노의 상황은 문항이 다소 적었으며, 뒤의 연구문제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분노와 슬픔의 정서반응이 혼돈되어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감검사 I과II의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의 예]

1.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아이를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2.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울 때가 있다.

3) 兒童의 性特性 測定道具

아동의 女性性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로써 학교생활, 가정생활, 놀이활동, 의복 및 성격 특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30 문항의 질문지이다.

도구제작전에 국민학교 아동 남녀 150 명을 대상으로 교과목, 집안 일, 놀이, 의복 등의 영역에서 좋아하는 것을 자유로 쓰게 하여 남녀의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 30 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성격특성의 영역에서는 김미혜의 연구(1983)에서 Spence 등(1975)의 C. P.A.Q (Children's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번역 수정하여 52개의 질문을 가지고, 500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선정한 15 개의 문항에 Bem (1974) 과 이재연(1982)의 척도를 참고하였다. 여성적 특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문항을 더 첨가하여 17 개의 문항을 연구자 L 작성하였다. 이상의 총 47 문항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거쳐, 남녀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항목 30 개를 선정하여 본 조사 질문지로 하였다. 아동이 읽고 스스로 답하도록 되어 있는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85 이상이었다.

[문항의 예]

<p>1. 내가 좋아 하는 교과목은 국어 () 이다. 산수 ()</p> <p>2. 나는 집안에서 () 집밖에서 (), 놀기를 더 좋아한다. ()</p>
--

4) 父母에 대한 親密度測定道具

Walker 와 Thompson(1983)의 부모 자녀간의 친밀도 측정을 위한 17개의 항목과

Bengston 과 Cutter(1976)의 친밀감의 하위요인인 이해, 존경, 애정, 수용 등의 개념을 참고로, 이에 알맞은 구체적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김남순(1975), 이주리(1984)의 부모와의 친밀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문항을 참고로 아동학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검사지는 父와 母의 친밀도를 따로따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父, 母와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1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Y국민학교생 150 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한 38 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부모와는 이미 친밀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親密度의 정도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립적 태도인 중간점이 예상되는 답지는 빼고 4점척으로 하였다. 문항의 內的合致度는 .85 이상이었다.

[문항의 예]

<p>나는 나의 어머니를</p> <p>① 매우 좋아한다. ()</p> <p>② 좋아한다. ()</p> <p>③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p> <p>④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p>
--

3. 研究節次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 도구는 前述한 4 가지 도구로써 총 검사에 40분 내지 1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동이 지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가지 공감검사를 먼저 개별적으로 실시한 뒤 부모에 대한 親密度와 性

特性 검사는 담임 선생님이 적당한 시간을 택해서 집단으로 실시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1) 兒童의 共感檢査 I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 졸업생으로 하여금 Feshbach 와 Roe 의 A.S.T의 이야기 내용을 아동들이 흥미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동화를 이야기해 주듯이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원인 2명은 다른 연구 도구들의 문항을 잘 읽고 시행 방법을 숙지하도록 본 연구자가 설명을 해 주었다. 조사는 正常家庭兒는 피조사 아동의 교실에서 수업 후에 실시하되, 2학년 아동은 이야기나 문항을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사람씩 실시하였으며, 4, 6학년은 5~10명씩 소집단별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실에 아동이 들어오면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이름을 묻고 기타 가족관계나 취미등을 물어서 래포를 형성한 다음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1분간 제시하였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겠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와 (또는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입니다. 내가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해줄테니까 잘 듣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아동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험이 아니고, 학교성적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이란 다 다른것 이므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답도 틀리는 답도 없어요. 만약에 ○○가 (또는 여러분이)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는 모른다든가 아무

낌이 없다고 대답해도 되요”라고 함으로써 편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의 순서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며 이야기를 3장의 그림과 함께 들려준 후 “이 이야기를 듣고나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말했다. 예비조사시에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을 때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사실의 판단, 선악분별, 자기의 결심 등을 주로 답하였으므로 본 조사시에는 아동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마음 등을 이야기해 달라고 질문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요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施設受容兒는 같은 절차를 취했으나 피조사 아동의 학교가 아닌 보육원내의 강당이나 식당에서 실시하였다. 先入見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응답의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25분이었다.

2) 兒童의 共感檢査 II

아동이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하는 공감검사 I과는 달리, 타인이 처한 상황과 거기서 유발될 수 있는 정서가 다 記述되어 있는 문항에 공감의 정도에 따라 표시만 하면 되는 검사였으므로 공감검사II는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담임선생님에게 조사의 목적과 응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특히 2학년은 어려운 문장이 있으므로 한 문장씩 교사가 읽어 주도록 부탁하였다.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집단으로 검사를 실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총 20분이었다. 施設受容兒의 경우도 정상아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취하

였으나, 시설수용아의 경우는 아동이 읽고 스스로 답하는 질문지도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 졸업생이 직접 실시하였다.

3) 父母에 대한 親密度檢査

공감검사Ⅱ와 같이 아동이 질문지의 문항을 읽고 직접 응답에 표시를 하도록 된 검사도구였으므로, 역시 담임선생님께 의뢰하여 집단으로 검사를 실시, 회수하였다.

4) 兒童의 性特性檢査

이 검사도구 역시 아동이 문항을 읽고 스스로 응답에 표시 하도록 된 질문지였으므로 담임선생님께 의뢰하여 공감검사 Ⅱ와 같은 절차로 조사, 회수하였다.

4. 調查結果의 處理

1) 資料의 數量化

(1) 兒童의 共感度

공감검사 I의 경우 아동이 실험자가 선정한 그림이야기 8가지 내용에 공감하는 답을 했을 때에 각 情緒狀況에 1점, 다른 답을 했을 때에 0점을 주어 한 정서상황에 두가지 이야기씩 2점 만점이 되며 4가지 정서에 총 8점 만점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共感度가 높은 것이다. Feshbach와 Roe의 채점 방법은 두 가지로써, 정서의 언어적 표현이 정확한 정답에만 점수를 주는 명확한 채점방법 (Specific scoring system) 과 대답을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기쁘다라는 응답에 좋다, 흐뭇하다, 뿌듯하다는 등의 답이면 점수를 얻는 개괄적 채점방법 (General scoring system)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 4, 6학년이라는 학년 차에 의한 언어적 표현능력이 공감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 연구의 목적이 아

동의 共感정도를 밝혀내는 것이며 언어표현의 정확성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後者의 기쁜 상황의 정서반응에 “좋아요”라든가 슬픈 상황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등의 응답에도 점수를 주는 채점방법을 택하였다. 채점은 검사를 직접 실시한 아동학 전공 대학원 졸업생과 본 연구자, 2인이 하었는데 채점자간의 평가의 합치도는 80%에서 100%에 이르렀다.

공감검사Ⅱ에서는 문항을 읽고 자신도 확실하게 그렇다고 느끼면 “네”에, 보통으로 그러하다고 생각되면 “그저 그렇다”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오”에 표시하도록 하여, 문항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공감을 하는 정도에 따라 2점, 1점, 공감을 하지 않는 응답을 할 경우엔 0점을 얻는다. 총 17문항에 다 共感을 했을 때엔 34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공감도를 나타낸다. 공감검사I, Ⅱ의 점수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검사도구이고, 두 검사 도구간의 상관계수가 아주 낮았으며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따로 분석되었다.

(2) 兒童의 性特性 測定

총 30문항으로써 여성적 항목에 답을 하면 2점, 그렇지 않은 항목에 답을 했을 때 1점을 얻는다. 전부 여성적인 항목에 답을 한 경우 60점이 되면 점수 범위는 30점에서 60점까지가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여성성을 나타낸다.

(3) 父母에 대한 親密度 測定

4점의 likert 척도로써, 총 38문항에 부모 각각 19문항씩 76점이 최고점이 되며, 부모 친밀도의 합은 152점 만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4) 家庭의 社會經濟的 階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고졸이상, 중졸이하로 나누어 각 3, 2, 1점을 주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홍두승의 연구(1983)를 기초로 고위 전문직 및 고급관리직(의사, 변호사, 고급공무원, 대학교수) 사무직, 자영상인, 서서비스 종사자 및 근로직(단순노무자 숙련공)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3, 2, 1점을 주어 이상의 3가지 점수를 합하여 8~9점은 상류계층, 6~8점은 중류계층, 5점이하를 하류계층으로 구분하였다.

V. 結果 및 解釋

본 장에서는 前述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假設別로 他先行研究와 함께 제시하였다.

가설 1) : 아동의 共感度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意味있게 증가한다.

본 假說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집단별 공감도의 평균차이를 一元變量分析한 결과 밝혀진, 정상가정아의 연령에 따른 공감도의 차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감검사 I의 경우에 전체점수에서는 年齡別로 意味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下位情緒에 대한 공감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슬픔과 분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반면 공포의 상황에 대한 共感은 오히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감검사 II의 경우에는 $F(2, 304) = 3.09$

로 $P < .05$ 수준에서 연령별 共感度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공감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4학년이 가장 높은 공감도를 나타낸 점이 의외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肯定되었다.

이상 年齡別 共感度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共感尺度 2가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감검사 I에서는 전체 점수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나 下位情緒狀況에 대한 공감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공감도의 증가를 보았으며, 공감검사 II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공감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으나 8세보다는 10세 12세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10세 아동이 가장 높은 공감도를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는 어느정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生活經驗이 풍부하여지고 타인의 役割受容能力이 커지므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어 슬픔이나 분노상황에 대한 공감이 커진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공감도가 같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다만 8세와 10세, 12세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가설 2) : 女兒의 共感度는 男兒의 共感度보다 意味있게 높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正常家庭兒의 공감검사 I, II 및 下位情緒狀況 4가지에 대한 공감의 남녀별 평균점수 <表2-1>과 같다. 다음의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감검사 I 및 下位情緒狀況 모두에서, 남녀간의 意味 있는 공감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감검사 II에서는 $F(1, 305) = 31.22$ $P < .01$ 로 공감도에 미치는 性別效果가 意味있었다.

<表1-1> 共感檢査 I・II의 年令別 平均點數

연령	공감 I		공감 II		기쁨		슬픔		분노		공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8세 (N = 101)	5.80	1.88	40.65	5.54	1.57	.62	1.39	.68	1.26	.73	1.43	.74
10세 (N = 99)	5.65	2.11	41.49	5.43	1.47	.63	1.68	.58	1.31	.84	1.23	.77
12세 (N = 107)	6.00	1.49	39.70	5.10	1.49	.66	1.74	.50	1.52	.65	1.20	.75
전체 (307)	5.82	1.84	40.59	5.39	1.51	.64	1.61	.61	1.37	.75	1.29	.76

<表2-1> 男女兒童의 共感檢査 I・II의 平均點數

성별	공감 I		공감 II		기쁨		슬픔		분노		공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 N = 158	5.66	1.84	39.00	5.04	1.48	.64	1.60	.60	1.36	.76	1.23	.76
여 N = 149	6.00	1.81	42.28	5.17	1.54	.63	1.61	.61	1.37	.73	1.36	.73
전체 (307)	5.83	1.84	40.59	5.39	1.51	.63	1.61	.61	1.37	.75	1.30	.76

<表5-1> 施設受容兒와 正常家庭兒의 共感度의 平均點數 差異

종속변인	정상가정아 (N = 307)		시설수용아 (N = 55)		t 값 (one-tailed)
	N	SD	M	SD	
공감 I	5.87	1.84	5.29	1.40	2.49**
기쁨	1.51	.64	1.51	.57	.07
슬픔	1.61	.61	1.44	.66	1.84
분노	1.37	.75	1.15	.71	2.17*
공포	1.30	.76	1.20	.70	.96*
공감 II	40.58	5.35	40.56	5.55	.93

* $p < .05$

** $P < .01$

따라서 가설 2는 공감검사Ⅱ의 경우에만 肯定되었다. 즉, 공감검사Ⅱ에서 女兒의 공감도가 남아의 공감도 보다 의미있게 높음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共感測定方法에 따라서 性別에 따른 공감도의 차이가 一貫性 없이 나타난 것은 Eisenberg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공감의 성별차이에서 공감측정방법의 차이이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은, 실험자의 性別問題인데, 본 연구에서와 같은 A.S.T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자의 공감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들 (Feshbach & Roe, 1968 ; Feshbach & Feshbach 1969 ; Roe, 1977)은 實驗者가 모두 여자였으며, 남자가 공감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Eisenberg & Lennon, 1980)는 실험자가 남자인 경우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의 성별이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감도의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별에 따른 共感度의 차이는 공감검사Ⅱ에서만 입증되었다. Berman(1980)은 유아나 아동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서 남녀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이렇듯 반응에 있어서 진정한 性差가 없어도, 여성들이 자신을 더 共感的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답을 하려는 경향이 공감검사Ⅱ에서 남녀차이를 나타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감검사Ⅱ는 슬픔의 정서에 관한 문항이 17문항 중 7문항을 차지한 것이 여아의 공감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설 3) 父와 母에 대한 親密度가 높은 아동의 공감도가 父와 母에 대한 親密度가 낮은 아동의 공감도 보다 意味있게 높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父와 母에 대한 친밀도 점수의 母, 父에 대한 친밀도, 母에 대한 친밀도 점수 빈도표에서 높은 점수에서부터 낮은 점수까지 각각 33%씩 3 집단으로 나누었다. 부모의 친밀도를 합했을 때 친밀도가 높은 집단이 142-125 점, 중간 집단이 124-114 점, 낮은 집단이 113-79 점이었으며, 父와 母의 각각의 친밀도는 높은 집단이 60 - 72 점, 중간집단이 53 - 59 점, 낮은 집단이 32 - 52 점으로 나뉘어 졌다. 이렇게 나눈 부모에 대한 친밀도에 따른 남녀 아동의 공감도를 一元變量分析을 하였는데, 父, 母와의 친밀도에 따라 공감검사Ⅰ의 경우 $F(2, 304) = 3.21$ $P < .05$ 로, 하위정서 상황의 슬픔의 정서에 대한 공감 역시 $F(2, 304) = 3.35$ $P < .05$ 로 아동의 공감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공감검사Ⅱ에서는 $F(2, 304) = 7.14$ $P < .01$ 로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父와 母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공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肯定되었다.

Duncan 검증 결과 공감검사Ⅰ의 경우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공감검사Ⅱ에서는 부모에 대한 친밀도가 낮은 집단, 중간집단이 다같이 부모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집단과의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 모에 대한 친밀도를 父와 모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했다. 父와의 친밀도는 아동의 공감검사Ⅱ의 경우에만 $F(2, 304) = 4.13$ $P < .05$ 로 의미가 있었다. 공감검사Ⅰ 및 하위정서 4 가지 상황 어느 것에서도 父와

의 친밀도에 따른 아동의 공감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나타난 바와 같이 母와의 친밀도는 공감검사 I에서 $F(2, 304) = 3.29, P < .05$ 로 슬픔의 정서 상황에서 $F(2, 304) = 5.56, P < .05$ 로 유의하였으며 공감검사 II의 경우에는 $F(2, 304) = 8.91, P < .01$ 수준으로 남녀아동의 공감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Duncan 검증을 해 본 결과, 父, 母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및 중간집단과 아동의 공감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친밀도가 높은 집단의 아동의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母와의 관계가 아동의 공감 발달과 正의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들(Barnett et. al., 1980 ; Roe, 1980)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아동이 知覺하는 母의 따뜻한 태도와 애정이 아동이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 Mussen(1982) 과 Bryant(1982) 의 연구보고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타당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父와 母에 대한 친밀도를 다시 남녀아동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더니 女兒의 경우 父와 母 어느쪽과도 친밀도에 따른 아동의 공감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男兒의 경우에는 공감검사 I에서 $F(2, 155) = 4.09, P < .05$ 그리고 공감검사 II에서는 $F(2, 155) = 3.77, P < .05$ 로 母와의 친밀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父와의 친밀도에 따른 남, 여 아동의 공감도는 남녀아동을 합해서 분석했을 때와는 달리 공감검사 I, II 어느것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Feshbach(1982)의 연구와 Roe(1980)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母가 특히 딸의 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母의 공감과 아들의 공감과는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아들의 공감발달은 母와의 관계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Mussen(1982)은 하류계층에서는 母의 애정과 아들의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의 하류층이나 우리나라의 특별한 母子關係에서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국민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이므로 일상생활에 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특히 아들에게 집착, 선호하는 母의 태도가 딸에게 보다 아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던 父와의 친밀도에 따라 아동의 공감발달이 영향을 받으리란 예상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 아동을 합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父에 대한 친밀도에 따른 공감검사 II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에서 다소간 아버지의 영향을 시사받을 수 있다. 더우기 父와의 관계는 아동이 지각한 친밀도이므로 실제의 아버지의 태도와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심층 연구가 요구되나 본 연구결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아동은 父와의 관계를 가깝게 지각하고 있지 못하며 자녀의 성장발달에는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설 4) 社會經濟的 階層이 높은 가정의 아동의 共感度가 社會經濟的 階層이 낮은 가정의 아동의 共感도 보다 意味있게 높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變量分析 방법으로 통계처리한 결과 가정의 사회계층에 따른 아동의 공감도의 차이에서는 공감검사 I, II 어느 것에서도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가설 5) 施設受容兒의 共感도는 正常家庭兒의 共感도 보다 意味있게 낮다.

본 연구의 獨立變因인 아동의 養育環境을 正常家庭環境과 施設受容環境으로 나누어서 이들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공감도를 비교해 보고자 시설수용아와 정상가정아의 공감도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表<5-1>과 같다.

表<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검사 I 및 슬픔의 정서, 분노의 정서에 대한 공감이 5% 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正常家庭兒가 施設受容兒보다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기쁨 및 공포의 정서상황에 대한 공감에서도 정상가정아의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하였다. 공감검사 II에서는 두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가설 5는 공감검사 I의 경우에만 肯定되었다. 즉, 정상가정아가 시설수용아보다 타인의 特定情緒狀況에 더 높은 공감을 나타내며, 下位情緒別로는 분노의 정서에서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는 분노의 감정은 도덕판단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아동의 認知發達에 따라 도덕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

하면 아마도 양 집단의 인지발달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한편으로는 시설수용아는 가정교육의 결핍으로 양심의 발달이나 道德基準이 덜 확립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구성을 위해 Bryant의 공감척도를 번역, 수정하여 E국민학교생 200명과 보육원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역시 공사검사 I에서만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었고, 공감검사 II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두 번의 조사에서 다같이 아동자신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공감검사 I에서만 정상가정아의 공감도보다 시설수용아의 공감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아동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유추한 후에 아동자신의 공감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공감검사 I의 측정방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공감검사 I의 방법이 공감검사 II의 방법보다 응답에 더 높은 어휘력과 상황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시설수용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지수준이 낮은데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해석과, 다른 한가지는 역시 認知的, 情緒的 자극의 결핍 및 의사소통훈련의 부족으로 자기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정상가정아보다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수용아들은 검사하는 동안에 주의집중력이 부족했으며, 자주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한다든가 검사하는 동안 꾸준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동이 많았다. 응답의 어휘 역시, 정상가정아보다 많이 부족하여, 나쁘다, 좋다라는 단순한 어휘이거나 잘 모르겠다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설 6) 아동의 女性性和 共感度間에는 有意한 正的相關이 있다.

여성성집단은 부모에 대한 친밀도와 마찬가지로 여성성 점수별 빈도분포 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까지 33%씩 나누었다. 그 결과 여성성이 높은 집단은 48~58점, 중간집단은 39~47점, 낮은 집단은 32~38점의 3집단으로 나누어 아동의 공감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감검사 II에서는 $F(2, 304) = 14.84$, $P < .01$ 로 여성성에 따라 공감도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Duncan 검증결과도 아동의 여성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성이 가장 낮은 집단과의 사이에 共感度の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감검사 I에서는 아동의 여성성에 따라 공감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有意味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6은 공감검사 II의 경우에만 긍정되었다.

결국 남녀 아동을 합해서 분석했을 때 女性性에 따라 공감도의 차이를 보인것은 女兒의 여성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의 경우에만 여성성에 따른 공감도의 차이가 입증된 것으로서 여아가 스스로 공감적이라고 생각하며 돌봄이나 타인에의 배려등 전형적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는데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아의 경우엔 공감을 높이는 것은 여성적 특성이 아닌 다른 어떤 요인, 예를 들면 상황의 이해나 타인의 존재여부 또는 상황에 처한 타인의 정서적 특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Feshbach (1982)도 男兒는 상대가 불행할 때에 행복할 때 보다 공감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감도와 여성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없고 共感發達の 남녀차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여성성이 높은 아동이 共感도가 높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이나 女性性이 높은 사람이 도움행동을 더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 (Staub, 1978; Toi & Batson, 1982)는 利他利動의 중재변인이 공감임을 생각해 볼 때 공감발달과 여성성은 정적관계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V. 結論 및 論議

본 연구는 아동의 共感發達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6개의 假說과 2개의 研究問題를 설정하고 Feshbach와 Roe의 공감측정도구와 Bryant의 공감척도를 이용하여, 正常家庭兒와 施設受容兒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본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몇가지의 결론과 본연구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공감연구를 위한 몇가지의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공감발달은 어느 수준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나 그 이후에는 연령이외의 다른 어떤 변인, 예를 들면 가치관이나 도덕 판단등이 공감 유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들 (Feshbach & Roe, 1968; Marcus et. al., 1979; Hugh et. al., 1981)은 幼兒期 혹은 8세, 9세까지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공감발달을 밝히었고, Bryant(1982)는 1학년과 4학년 간에는 공감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Iannotti의 연구에서 9세 아동의

공감도가 더 어린 아동들 보다 낮게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공감Ⅱ의 경우 8세, 10세 보다 12세 아동의 공감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황에 대하여 순수하게 공감이 유발되기 보다는 善惡의 분별이나 가치판단이 공감에 앞서 일어나기 때문에 순수한 공감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공감보다는 먼저 잘잘못을 따져 본 후,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엔 딱하다고 느끼기 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의 지적과 같이 공감이 文化價値와 관련된 것이라면 Bryant의 연구에서 利他心이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문화권인 미국의 7학년 아동이 더 어린학년의 아동보다 높은 공감도를 나타낸 것은 수긍이 가는 결과이나,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12세 아동이 공감검사Ⅱ에서 가장 낮은 공감도를 보인 것을 가치개념과 관련시켜 해석하기에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바 없으므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추론으로는,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은 학교교육의 영향과 누적된 생활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공감의 대상과 수준이 달랐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공감수준의 문항들이 혼재한 상태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공감도가 높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當爲”를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로, 딱한 처지의 친구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공감을 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본 연구의 공감측정도구중 Feshbach와 Roe의 검사도구는 유아 및 8, 9세 아동까지 주로 사용되는 것이었으므로 고학년의 검사에는 적합치 않으리라 생각되나, 여러 연령층의 아동의 공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본다. 이러한 측정방법상의 문제가 본 연구의 문제점이자 제한점이었으며 공감수준별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본 연구에서 공감수준의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다.

둘째, 아동의 特定情緒에 대한 共感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연령층에서 단순히 情緒的인 공감인 기쁨의 정서에 대한 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경험이 쌓여 가면서 슬픔의 정서의 공감이 증가하며, 선악의 판단이나 도덕발달의 영향을 받는 분노의 정서에 대한 공감 역시, 연령의 높을수록 공감도가 높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단지 가장 높은 공감도를 보인 정서가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슬픔의 정서인데 비해, 미국 아동은 기쁨의 정서였던 점이 달랐으며, 이는 역시 생활 문화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男, 女兒의 공감도의 차이는 두가지 공감검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여자의 공감도가 높은 것은 공감측정 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종래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여성성에 따른 공감도의 차이에서도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여성은 스스로 여성적인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여성은 자기報告式의 공감검사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며, 共感이 여성적 특성이라는 일반적 관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성은 공감을 잘 하는 것이 여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공감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성은 도움행동을 나타내는 속도가 늦으며 (Darley & Latane, 1968) 최근 양성적인 사람이 더 높은 도움행동을 보였다 (Senneker & Hendrick, 1983)는 연구 결과는 단순한 공감적 반응의 높고 낮음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공감적 행동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며 더 나아가서 공감과 사회적 행동, 혹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넷째, 아동의 공감발달은 父母와의 親密度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母와의 관계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것은 시설수용아의 공감도가 정상가정아의 공감도 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입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母와의 친밀도는 아들의 공감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母와의 친밀도가 중간집단과 낮은 집단과의 사이에는 아동의 공감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母와의 친밀도가 아주 긴밀한 때에만 아동의 공감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외국의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준 것으로, 서양문화권에서는 母가 아들보다 딸에게 더 온정적이고 애정적으로 대하는 반면 한국의 가족문화에서는 가계계승 및 男性優位思想으로 말미암아 母와 아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인된 결

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의 핵가족에서 父가 아동발달에 주는 영향이 좀 더 증대되었으리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父와 母 자신에게서 직접 조사된 것이 아니고 아동을 통해서 지각된 父와 母에 대한 친밀도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아동들의 父와의 관계가 母와의 관계 만큼 친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섯째, 국민학교 아동은 특정정서에 대한 공감, 특히 슬픔과 분노의 정서에 대한 공감을 구별해서 나타내지 못했다. 같은 상황에서 아동에 따라, 분노 혹은 슬픔의 정서반응을 보였다. 분노를 일으킨 대상이나 그 상황에 대해 화가 난다라는 대답을 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의 약한자에 대해 안됐다 혹은 불쌍하다라는 응답을 하는 아동이 더 많았다. 이의 이유로써 첫째, 국민학교아동은 특정정서를 변별하기에는 아직 감정이 충분히 分化되지 못했다. 둘째, 아동은 슬픔이나 분노의 정서적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아동은 각자 자신이 익숙하게 반응했던 방법 (혹은 정서반응)으로 공감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든가 슬픔을 느끼는가의 문제는 아동개인의 인성 및 그의 경험관 관련되었을 것이다. 넷째로 공감측정에 사용된 이야기의 내용이, 보는 관점에 따라 두가지 감정을 변별해서 반응하기에는 미흡했음지도 모른다는 네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아동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경험과 연구방법상의 차이로 귀결된다. 곧 유아기부터 감정표현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부모의 태도 및 환경조성

이 중요하며, 아울러 여러 연령층의 공감을 동시에, 혹은 변별해서 유발할 수 있도록 고안

된 공감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김나영 (1985), 어린이의 共感成立에 있어서의 要因分析, 아동학회지 6.
- 김미혜 (1984), 아동의 공감능력과 性役割 指向과의 관계, 성균관대 학교대학원 석사 논문.
- 연진영 (1986), 아동의 공감발달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가정문화연구 제 4집.
-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미만갑교수회갑기념논총.
- Arthur, M.M. (1983). The growth of emotional empathy and certain personality correlates in adolescents engaged in face-to-face helping. Forh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Bardwick, J. (1971).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Harper & Row.
- Batson, D., Bruce, D., Paula, A., Terese, B., & Kinberly, B.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90-302.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 Bryant, B.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ckley, N., Sigel, L., & Ness, S. (1979).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9-330.
- Chandler, M. & Greenspan, S. (1972). Ersatz egocentrism: A reply to H. Borke. Development Psychology, 7, (2), 104-106.
- Chlopan, B., McCain, M., Carbonell, J. & Hogan, R. (1985). Empathy: Review of availabl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3), 635-653.
- Cohen, R. (1978). Altruism: Human, culture, or what? In L. Wipser (Ed.), Altruism, sympathy, and helping. N.Y.: Academic Press.
- Crandall, J.E. (1980). Adler's concept of social interest: Theory and measurement and implication for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81-495.
- Darley, J.M., & Latane, B. (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377-383.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84,(1), 100-131.
- Eisenberg, N., & Lennon, R. (1980). Altruism and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552-557.

- Fay, B. (1970). The relationships of cognitive moral judgement, generosity and empathic behavior in six- and eight-year-ol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Education.
- Feshbach, N.D., & Feshbach, S. (1969).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in two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1, 102-107.
- Feshbach, N.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2, 25-30.
- Feshbach, N.D., & Roe, K. (1968). Empathy in six and seven year old.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Friedrich, L.K., & Stein, A.H. (1975). Prosocial television and young children: The effect of verbal labeling and role playing in learning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46, 27-38.
- Gladstein, G.A. (1983). Understanding empathy: Intergrating counseling,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467-482.
- Gove, F.L., & Keatting, D.P. (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94-600.
- Grusec, J., & Arnason, L. (1982). Consideration for others: approaches to enhancing altruism. In Moore, S.G., & Cooper C.R. (Eds.)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Vol.3. Washington, D.C: NAEYC.
- Hartshorne, H., & May, A. (1929). Studies in service and self control. New York: MacMillan.
- Hetherington E.M. (1981). Contemporary reading in child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Hoffman, M.L. (1970). Moral development. In Mussen (Ed), Ca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II, N.Y.: Wiley.
-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607-622.
- Hoffman, M.L. (1977).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54, 712-722.
- Hoffman, M.L. (1981a).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 117-121.
- (1981b). Perspective on the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 people and understanding things: The role of affect. In Flavell (Ed),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1c).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feeling and behavior. In Hetherington, E.M. (Ed), Contemporary
-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Hoffman, M.L., & Staltzstein, H.D. (1967). Parental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 Clinical Psychology, 33.
- Howard, J.A. (1983). Preschooler's empathy for specific affects and their social interaction. Kansas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Huckaby, L.M. (1971).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moral-social behaviors to empathy, to positive social behaviors and to cognitive moral judg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Education.
- Hughes, R., Tingle, B.A., & Sawin, D.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Iannotti, R. (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Iannotti, R. (1978). Effect of role taking experiences on role 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typing and sex-role identity. In M.L. Hoffman & L.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l Sage.
- Kirkpatrick, C. (1949). Religion and humanitarianism: A study of institutional implications. Psychological Monographs, 63.
- Klein, R.S. (1970). Som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six-year-old and seven-year-old children varying in ethnic background. University of California, Doctoral dissertation.
- Knudson, K., Kagan, S. (1982). Differential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249-251.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6), 1134-1146.
- Lee, J.Y. (1982).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awareness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Korean children. Oregon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Levine, L. & Hoffman, M.L. (1975). Empathy and cooperation in four-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533-534.
- Marcus, R., Tellen, S., & Roke, E. Jr. (1979). Relation between cooperation and empath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46-347.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ussen, P., & Eisen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San Francisco: Freeman and Co.
- Peterson, L., & Gelfand, D. (1984). Causal attributions of helping as a function of age and incentives. Child Development, 55, 504-511.
- Polivy, J. (1981). On the induction of emotion in the laboratory: Discrete moods or multiple affect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803-817.
- Roe, K. (1980). Toward a contingency hypothesis of empathy development.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991-994.
- Rutherford, E., & Mussen, P. (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9, 755-765.
- Sawin, D. (1979). Assessing empathy in children: A search for an elusive construc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 Senneker, P., & Hendrick, C. (1983). Androgyny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16-925.
- Shigetomi, C., Hartmann, D.P., & Gelfand, D. (1981).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 and reputations for helpful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34-437.
- Staub, E. (1971). The use of role playing and induction in children's learning of helping and shar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42, 805-816.
- Staub, E., Bar-Tal K., Karylowski, J., & Reylowskik, J. (1984).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N.Y: Plenum.
- Strayer, J. (1980). A naturalistic study of empathic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affective states and perspective taking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815-822.
- Suda, W., & Fouts, G. (1980). Effects of peer presence on helping in introverted and extrover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1272-1275.
- Thompson, R.A., & Hoffman, M.L. (1980). Empathy and the development of guilt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55-156.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 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Walker, A., & Thompson, L. (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
- Weitz, S. (1977). Sex roles: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oundatio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Zahn-Waxler, C., Radke-Yarrow M., K., & King, R.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ten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 Zarbatany, L., Hartmann, K., Gelfand, D., & Vinciguerra, P. (1985).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tic reput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7-101.